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
2023. 08. 11(금)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록

결재	담당	과장	전무	조합장

춘천시산림조합

회 의 록

❒ 회의종류 : 춘천 사복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

❒ 회의일시 : 2023. 08. 11. 금요일 (14:00 ~ 16:00)

❒ 회의장소 : 춘천시산림조합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10인(위원 박규원, 위원 유한영, 춘천목재협동조합 이사 김외정, 산림기술연구원 실장 최성민, 연구원 윤상호, 연구원 박혜인, 산림과 계장 박승기, 주무관 조영운, 선도과장 최종하, 사업담당 윤동호)

♦ 연구원 윤상호 : 지금부터 춘천 사복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과장님께서 춘천 사복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선도과장 최종하 : 춘천 사복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현황 및 선도단지 소개하다.

♦ 연구원 윤상호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이며, 정확한 수요처와 생산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산목재가 수입목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품질과 규격이 균일하지 않고, 가격이 수입목재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조기술과 제재기술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산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과 춘천목재협동조합과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협력관계로서 춘천에서 생산한 목재를 춘천에서 소비하는 방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김외정 :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산지소가 아니면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를 가격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춘천목재협동조합은 틈새시장으로 목조건축 문화시장과 융합을 생각했습니다. 수입목재에서 나오지 않는 규격을 국산목재로 활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자재로 납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 프리컷 도입 이후 일본내 자급 목재 사용량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지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촌의 문제점은 젊은 청년층의 부재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선도단지는 춘천에 있어 춘천목재협동조합과 건축시장의 중간다리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 선도과장 최종하 : 춘천 선도단지내에서 춘목에 원목 공급은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선도단지인 송암리 지역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상황이라 잣나무 임지가 많은 선도단지에서 원목 공급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산지소형 잣나무 반출에 대한 규제 적용을 지역내에서 이동시 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 김외정 : 지금 춘천목재협동조합내 고주파 시설이 있어 소나무, 잣나무는 고주파로 쬐면 재선충을 소멸할 수 있어 재선충 감염목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출 금지라는 규제는 산림청 관계자들과 논의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실장 최성민 : 현재 1/3이 재선충 구역으로 묶여있어 목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쉬울 뿐입니다. 너무 많은 양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여있어 지금 국산목재활용을 위해 반출금지라는 용어도 개선하고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지침을 개선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원목을 구입하는 곳에서 단가를 맞추면 생산하는 곳에서도 단가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이또한 지금 연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결과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김외정 : 목재 제재목 단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제재소는 사이(재)당 500~600원 정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춘천목재협동조합은 사이(재)당 1,000원~1,200원으로 단가가 제재소보다 2배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생산하는 쪽에서도 단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춘천에서 춘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운반비가 감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높힐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주는 사회 경제적 이득도 있습니다. 춘목의 건조시설은 비중이 높아 건조하기 힘든 참나무에 대해서도 고주파 건조기로 결함없이 건조가 가능합니다. 우리 춘목에서 공급 받을 대표적인 수종을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참나무를 주요 원목으로 받고자 하는데 최소 말구직경이 침엽수 24cm이상, 활엽수 21cm이상 직재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원목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과장 최종하 :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천연활수림이 70%이상이며 평균경급 16~18cm 이상으로, 최소밀구직경 18cm이상의 원목까지 공급을 받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선도단지내 생산되는 참나무류의 원목의 문제는 규격이 동일하지 않고, 굴참, 상수리외에는 1,2등급의 목재를 즉 품질 좋은 원목을 공급하는데에는 선별작업을 별도로 수반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목공급시기 또한, 늦가을에서 벌채를 시작하여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는 원목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이사 김외정 : 원목 품질이 좋은 상품이 좋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원목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단지에서 나오는 원목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도단지는 지금 임도시설이 갖춰져 있어 벌채사업, 원목공급에 대한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장 최성민 : 제주도를 예로 들면, 삼나무를 지산지소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만들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연구원 윤상호 : 조례안을 만들면 확실히 제도적으로 국산목재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아니면 춘천시도 조례안을 만들어 진행해야 국산목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목조가공물 및 건축물 등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림과 박승기 계장님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계장 박승기 : 현재 지역내 생산한 목재를 지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품질보증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국산목재로 사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구원 윤상호 : 국산목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군요. 현재 고부가가치로 원목으로 활용하는 원목의 수요가 많은데, 고부가가치를 지니지 않은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회•경제적 형태로 활용방안을 연구해봤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자연울타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방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공방이나 그린우드워킹 등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어 자투리 나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장 박승기 :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춘천시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공공시설물에 국산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격이 엄격합니다. 안정성 검증이 안됐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연구원 윤상호 : 그러한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캠핑을 주제로 완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행사용품과 놀이시설, 놀이판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내에서 생산된 나무로 지역내에서 행사를 하여 어린이들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등으로 지역내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지산지소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국산목재이용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특화임산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회의 관계자 전원 : 동의하다.

♦ 연구원 윤상호 : 특화임산물 산채류 활용 방안으로 학교 급식을 생각해보았는데, 조사 결과 산나물이 향이 강해 어린아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선호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고 농산물에 비해 가격대가 맞지않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농촌체험같이 임산물 채취체험 같이 체험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체험행사는 선도산림경영단지와 지자체지원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선도과장 최종하 :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자체적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라호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선도단지내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내에서 표고버섯 및 산마늘 채취 체험을 통하여 마을 작목반 소득창출 및 마을내 별도 체험행사(떡메치기, 중식대)을 통해서 송암리마을 수익을 낸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선도단지내 등산로 신규사업 1차구간이 완료되어 숲탐방로나 단지내 등산로를 활용한 맨발걷기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연구원 박예인 : 좋은 생각이십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 올리면 공문요청을 통해 선도단지 체험활동의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NH여행이라고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산촌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면 수익성과 홍보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 선도과장 최종하 : 사북 선도단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주 및 마을에서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 계장 박승기 : 오늘 회의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마당 체험활동영역별에 우리 선도단지등록 가능여부, 산촌체험여행프로그램 추진,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의 춘천시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등 우리 선도단지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산림기술연구원에서 이부분에 대한 연구 부탁드리며 춘천시도 관심을 가지고 선도단지 경영주체와 함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박규원 : 제안 하나 드리자면,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인접한 주변 국유림을 MOU 체결하여 서포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천목재협동조합도 규격이 엄격하면 선도단지내에서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중경재, 대경재가 경쟁력이 있지만, 소경재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송암리는 마을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동이 강하여 아주 기대가 되는 선도단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산주와 소비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해야 임업순환경제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연구원 윤상호 : 오늘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도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여기계신 분들에게 연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의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 전 원 : 추가 의견은 없음을 말함.

♦ 연구원 윤상호 : 마무리 정리를 선도단지 위원 박규원 감사님에게 부탁하다

♦ 위원 박규원 :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안 감사드리며, 우리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사유림경영에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을 확신하는 말로, 인사에 갈음한 다음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 마침을 선언함.

회 의 참 석 자 등 록 부

순번	소 속	성 명	서명(인)	비고
1	춘천시육계협동조합	김 희정		
2	춘천시청	조영은		
3	춘천시청	박 [illegible]		
4	춘천시산림조합	최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6	산림기술연구원	최 [illegible]		
7	산림기술연구원	박 혜 인		
8	〃	윤 [illegible]		
9	춘천시산림조합	유 름 호	유 름 호	
10				
11				
12				
13				
계				

사 진 첩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 회의

